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40장 1-14절

날짜: 5월 24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하나님 앞에는 오직 두 사람,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밖에 모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80억의 인간들은 저마다 강력한 "나"를 주장하며, 2천 년 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식으로 선을 그으려 합니다. 이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라 착각하는 자아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들어온 지독한 '독소'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아담의 옛 창조를 끝내시고 예수를 통해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 포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죄와 사망 때문에 예수와 함께 우리를 죽이셨고, 주님을 부활시키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담 때문에 자동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한 분으로 인해 우리는 자동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선언은 바로 성도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감정이나 형편을 시인하지 말고 말씀의 실상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 새 피조물은 옛 세상의 가치관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신의 생명이라는 거룩한 씨앗을 받아 새로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빛이 실재가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이 마음속에 탄생하며,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는 상태가 됩니다.

창세기 40장의 배경은 비참하고 답답한 감옥입니다. 그곳에 갇힌 바로의 두 관원장은 하룻밤 만에 기이한 꿈을 꾸고 깊은 근심 빛을 띤 채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억울하게 갇힌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라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요셉의 안에는 환경을 이기는 소망과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인 '1층 세계'에 살며 돈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1층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1층을 다스릴 줄 아는 '2층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똑똑하고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짓눌린 자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안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 사람들의 인생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주고 상담해 줄 수 있는 담대한 영적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해석한 꿈의 본질은 결국 '3일만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모든 인생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원히 죽을 강도와 구원 얻을 강도 사이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숨이 끊어지셨을 때 비로소 위대한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옛 창조가 조금도 남지 않고 완전히 끝나야 주님의 새 생명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곧바로 총리로 만드실 수 있었지만 감옥에 두셨습니다. 감옥은 포로 된 장소가 아니라, 내 안의 선악과 독소인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작업장이자 십자가입니다. 내 옛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의 부탁에도 관원장은 그를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였습니다. 만약 일찍 풀려났다면 고작 고향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장관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깨어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가장 정확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요셉을 감옥에 묶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의 환경이 길어질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에게는 세상의 무시와 핍박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요셉이 꿈을 말하자마자 팔렸듯, 주님도 침례를 받자마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고,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자마자 사울의 칼날을 마주했습니다. 거듭나는 즉시 세상과 옛 자아는 원수가 되어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배척을 불행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나에 대해 죽었고 나도 너에 대해 끝장났다. 내가 살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담대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악해도 결국 그 모든 공격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 이용하셔서 내 옛사람을 깨뜨리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마십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목적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요셉처럼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세상에 십자가의 진리를 해석해 주며, 오직 예수의 생명만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는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ermon of the Week:

Waiting Upon the Lord's Timing



Passage: Genesis 40: 1-14 (ESV)

Date: May 24, 2026

Pastor: Dong Suk Chung

In the eyes of God, human history is distilled into just two figures: Adam, the first man, and Jesus, the last Adam. These are the two representative individuals through whom God views humanity. Yet today, eight billion people use worldly logic to distance themselves from Christ and ask how a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from 2,000 years ago could possibly matter to them. This illusion of "I am the master of my own life; I am my own god" was born the very moment humanity listened to the devil and ate the forbidden fruit. This is the deep, stubborn toxin that has infected mankind.

God brought the hopeless old creation of Adam to an end and started a new creation through Jesus. Jesus died on the cross because God included all of us in Him. Because of the sin and death inside of us, He put us to death along with Jesus, and when He resurrected, we were resurrected with Him. Just as we automatically became sinners because of Adam, we have automatically become righteous because of one man, Jesus. This is the core of Christian faith.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This declaration is spoken about you, the saints. Instead of giving in to our ever-changing feelings or hardships, we must boldly declare the unchanging reality of the Word with our mouths. This new creation has nothing to do with worldly metrics of success; it is a transformed identity born of the holy, incorruptible seed of God's own life. When the light of this salvation truly takes root, it births a hope and a joy within us that the world can neither give nor take away—

leaving us so profoundly changed that it becomes impossible not to share it.

Genesis 40 unfolds within the suffocating gloom of a royal prison. Confined there, two of Pharaoh's chief officials are left deeply troubled and anxious by unsettling dreams. Yet in the midst of this misery, Joseph—though unjustly enslaved and imprisoned himself—steps forward with bold assurance: "Do not interpretations belong to God? Tell me your dreams." Joseph could speak with such confidence because he was anchored by a divine hope and joy that completely transcended his bleak circumstances.

Unbelievers live only in the visible physical world, the "first-floor world," and worry as though they will die if they have no money. Believers, however, are not trapped on the first floor. They are "second-floor people" who operate from the spiritual realm, possessing the authority to govern the physical world below. The Lord does not choose the smart and well-born of the world, but chooses the weak and down-trodden in order to shame the wise. Therefore, saints must step forward as bold spiritual guides, using the Lord's indwelling wisdom to bring refreshing clarity and solutions to the broken lives of those in the world.

The essence of the dreams Joseph interpreted was ultimately about "death and resurrection after three days." This truth is the only key that solves all of life's problems. Even Jesus' great resurrection began only after He was completely forsaken and breathed His last breath. The Lord's new life works only when the old creation is completely ended.

God could have made Joseph the prime minister immediately, but He kept him in prison. The prison was not a place of captivity, but God's blessed training camp and the cross where He breaks the idol called "self," the toxin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within us. Unless the old

self is broken, one can never become a ruler.

Although Joseph asked the official for help once he left the prison, the official completely forgot about him, but this was God's precise providence. If Joseph had been released earlier, he would have merely returned to his hometown. God was keeping Joseph in prison while waiting for the exact moment when Egypt's Pharaoh would awaken from a dream that would turn the entire nation upside down. Therefore, when difficult circumstances seem to continue into prolonged suffering, believers should not complain, but quietly wait, saying, "Thank You, God; let Your will be done."

For believers who have received the life of Jesus Christ, the world's contempt and persecution are certain to follow. Just as Joseph was sold as soon as he shared his dream, the Lord was led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by the devil immediately after His baptism, and David faced Saul's sword soon after his victory when he killed Goliath. The moment that we are born again, the world and the old self become our enemies and persecute us.

However, believers should not regard the world's rejection as a misfortune. We should have this bold attitude: "You are dead to me, and I am finished with you. My only way to live is through Jesus." No matter how fiercely Satan assaults us, these attacks ultimately become nothing more than tools to complete God's will. God even uses those attacks to break the old self and accomplish His precious purpose. When we deny our flesh and take up our own cross, the Lord's will is fully accomplished. Like Joseph, even in prison, may you never lose your joy, may you interpret the truth of the cross to the world, and may abundant blessings overflow as you reveal only the life of Jesus through your lives.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